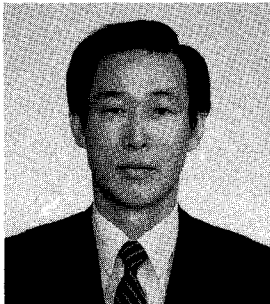


남해어항사무소

25개항에 577억6,700만원 투자

- 공사 성질별로 설계, 4월초까지 모두 착공 예정 -



김형인
(남해어항사무소장)

남해어항사무소는 전남 및 경남일원과 제주도 전역에 걸쳐 3개도연안 14개 시·군관내 1·3종항이 당초 35개 어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95년 4월 15일 어항 신규지정 고시에 따라 관내 1·3종항이 36개항(1종 20개항, 3종 16개항)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변경된 내용을 보면 전남 완도군 관내 보옥항이 3종항으로, 경남 거제시 관내 구조라항이 항만청 연안항에서 1종항으로, 제주도 북제주군 관내 애월항이 1종항에서 항만청 연안항으로 변경 지정되어 관리청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를 모두 끝마쳤다.

남해어항사무소 관할항중 연

차별 완공항 현황을 살펴보면 총 36개항중 '95년까지 17개항이 완공되었고 금년도에는 2개항(위미, 옥지항)이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어 '96년도 이후 남게되는 항이 17개항으로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개발해 오던 항을 완공 위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어항사무소 소관의 1·3종항에 대한 '96년도의 업무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어항이 태풍진로권에 위치하며 규모가 큰 항에 대하여는 조기발주로 태풍기 이전에 주요공종을 마무리하여 태·풍폭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며 공사관계자에 대하여는 기술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고 견설시공을 위한 현장확인점검 및 예비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어항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부실공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의 각종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어항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한편 어항시설 안전도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그리고 금년도 어항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 태풍진로권등을 감안, 공사 성질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설계작업을 조기에 착수 진행중에 있으며,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96년에 계획된 공사에 대한 계약 및 착공을 늦어도 4월초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다.

'96년도 남해어항사무소의 총25개항에 대한 어항건설공사 사업비는 별표와 같이 577억 6,700만원으로서 '95년도 대비 2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사업비내용은 일반회계 220억원과 농특회계 357억 6,7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를 투자 성질별로 구분하면 계속투자 대상 19개항에 511억 6,700만원, 정비확장 대상 1개항에 16억원, 보수보강대상 5개항에 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서항은 사업비가 50억원이상 공사로서 '95년도

에 이어 금년도에도 전면책임감리로 공사를 집행코자 하며 그 선정방법은 감리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실적 및 기술인력보유실태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과정을 거쳐 입찰대상자를 선정, 경쟁입찰을 실시코자 한다.

'96년도 주요항별 시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속 투자항으로 책정된 제주도 소재 위미항은 '95년도까지 약 240억원을 투자하여 동방파제 500M, 서방파제 190M와 물양장을 시설한데 이어 금년에는 약 35억원을 투자하여 잔여공사인 물양장 및 석산복구를 끝으로 총 투자계획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남해군 소재 육지항도 작년까지 약 199억원을 투자하여 동방파제 100M, 서방파제 200M, 남방파제 230M를 축조한데 이어 금년에는 약 32억원을 투자하여 잔여공사인 물양장 및 호안도로 등을 완성함으로써 인근해역 조업어선의 긴급대피항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완도군의 여서항 역시 '92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그 동안 72억원을 투자하여 동방파제 175M를 시설한데 이어서 금년도에도 50억원의 예산으로 동방파제를 계속 시설해 나갈 계획이며, '95년 4월 3종항으로 신규 지정된 완도군 소재

보옥항은 총투자계획이 약 286억원으로서 금년도에는 15억원의 예산을 투입, 남방파제를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96년도를 시작하여 남방파제, 북방파제, 물양장, 호안등 기본시설에 계속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계속 투자항으로서 남해군 소재 물건항과 고흥군 소재 시산항에 각각 45억원, 제주도 김녕, 도두항과 거제군 소재 지세포항에 각각 30억원, 고흥군 소재 내발항과 여천군 소재 초도항에 각각 25억원, 완도군 소재 득암항 등 8개항에 14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년도에 이어 방파제, 물양장등의 기본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또한 정비·확장사업의 미조항에는 16억원을 투자하여 물양장 및 서방파제를 정비하고, 보수·보강사업으로 계획된 녹동, 신수, 외포, 맥전포, 신양항에는 50억원을 투입하여 물양장 및 방파제등을 보강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업무추진 방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금년도 어항공사의 건설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시공중 품질시험적정성 확인 및 검사시험을 철

저히 실시하는 한편, 수심 10M이상 구조물에 대해서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검사 그리고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한 예비준공검사 실시 등으로 검사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어항개발 및 어항건설공사의 품질개선에 못지않게 어항이용질서확립을 위한 적극적 홍보로 어항시설 이용어민들의 인식도를 제고시키고 어항관리유관기관과의 정기협의를 더욱 활성화시켜 어항시설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의 사전예방과 시정조치등 어항관리 업무추진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항별투자예산(남해)

(단위:백만원)

구분	항명	사업비
계	25개항	57,767
	19개항	51,167
계속투자	매물도	2,000
	남도	1,800
	초도	2,500
	득암	2,000
	풍남덕	2,000
	삼암	1,800
	광암	1,800
	보육	1,500
	물건	4,500
	위미	3,495
	육지	3,272
	여서	5,000
	시산	4,500
	김녕	3,000
	지세포	3,000
	도두	3,000
정비확장	1개항	1,600
	미조	1,600
보수보강	5개항	5,000
	신수	1,000
	외포	1,000
	녹동	1,500
	맥전	500
	신양	1,000